

커리 박사가 요즘 우려하는 것은 고객유치나 수많은 방산 및 항공업체간의 경쟁이 아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계시장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대서양 양쪽의 보호주의에 따른 잠재적인 여파, 세계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초과생산능력, 일본의 경제적 위협, 일관성있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정책의 필요성과 같은 것이다. 커리 박사는 오랫동안 방산분야에 종사해 왔다.

1954년 Hughes 연구소의 기술요원으로 입사하여 레이저, 밀리미터파, 전기추진력, 전자 및 이온빔의 응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주업무로 처리하였으며, 1973년에 美 국방부 연구기술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커리 박사는 Hughes 부사장으로서는 5년간 근무후 1986년 2월부터 Dole Electronics사의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로 근무했다. 1989년 5월 Hughes사로 복귀, 대표이사겸 최고경영책임자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국방과학위원회의 태평양연안 국가 협력회의의 소위원회 의장도 맡고있다.

다음은 1992년 이후 유럽보호주의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에서 〈Defense News〉誌의 Theresa Hitchens기자와 가진 회견내용이다.

記者: 1992년 EC가 유럽시장을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정부가 대두되는 유럽보호주의정책을 철폐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업계가 대정부 압력을 가하여야 하는지요?

Currie: 저는 미국정부가 그런 일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확신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Alton Keef 대사(前 美 NATO대표)처럼 개인자격으로도 대서양 양측에서 폐쇄된 지역경제가 매우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확실한 조치보다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자: 의회가 과민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십니까?

커 리: 의회가 반응을 보일때는 항상 과민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보호주의 장벽을 쌓으면 실제로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기 자: 그러나 유럽방산업계는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이며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럽방산업체가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커 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상이 돌아가야하는 방법을 이상적으로 불려옵니다. 우리들은 세계적 규모에서는 순진합니다. NATO 동맹국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좀더 넓은 의미의 동맹국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합리적인 공동의 방산 및 항공산업을 유지할수 있다는 이상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주의적 시각을 소홀히 하는 점은 각국이 핵심고도기술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경제경쟁이라는 시각과 장거리 통신기술이 각국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들은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나자신을 많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약 중거리 空對空 유도탄(AMRAAM)의 경우와 같이 어떤 유도탄 기술을 공유한다면 그 자체가 일보 전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인 문제해결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일보 전진한 것입니다.

기 자: 장차 닥쳐오는 환경에서 어떤 사업수행방법이 유럽업체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 리: 예. 그것은 업체 대 업체라는 바탕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업체의 일을 다루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 자 : 유럽형 전투기(EFA)와 영국 전차와 같은 것을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實例로 보고 있는데...

커 리 : 바로 그렇습니다. 그와같은 유사한 여러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고 있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유럽對 미국의 문제이며 경제문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정부 고위관리와 업체들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무어라고 말하든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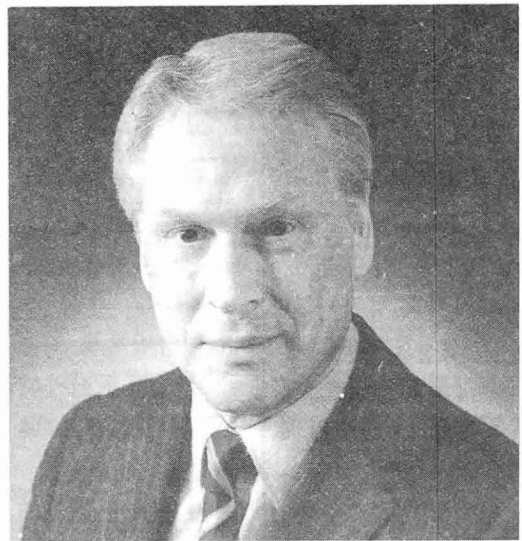
저는 이런 말을 듣고나서 일종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것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럽의 정치, 재계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기 자 : NATO에서는 국방예산 삭감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보다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주의를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 리 :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경향에 대한 상쇄력은 개별국가의 핵심산업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산능력을 어느정도 포기할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사실상 현재 세계의 항공 및 방산분야의 생산능력이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과학위원회의 태평양 연안국가 특별임무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목표와 비교해 보며,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나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들은 과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욕구 또는 강합니다.

일본은 금세기 말까지 최상급의 세계수준이 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목표를 위해 각종 연구기관과 산업구



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놓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이 오랜기간동안 가지고 있던 최상의 기술을 라이선스로 획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의 정책이 점차로 변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항공 및 방산분야에서 일본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됨은 물론 동등한 실력자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 美 商務部는 방산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커 리 : Mosbacher 장관이 있는 한 상무부는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여름에 국방과학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전략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현재단편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중국에 가서 전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못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행동보다는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관성있는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 <Defense News 1989. 9. 4>